

높은 산

| 김홍호 |

몸이 가벼워야 높은 산에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듯이 마음이 가벼워야 늘 배움을 통해
높이 오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마태복음 5:3 ~ 10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게 될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내가 대학생 시절에 내게 백두산에 가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졸업하고 가겠다고 안 갔어요. 또 금강산엘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졸업하고 가겠다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백두산도 못 보고, 금강산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남에서라도 실컷 산 구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화대학의 산악회가 등산 갈 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도 두 번 올라가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 보고, 덕유산과 설악산도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으레 앉게 되는데, 내가 산에 올라가 앉아봐서 그런지 성경 말씀에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혼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독좌대웅봉, 그 말도 좋은 말일 겁니다.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고 앉는 것만도 아닙니다. 올라가서 앉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여기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말은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 속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행복이라는 말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다” 그런 말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좋다. 왜? 예수님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는 40에 한 대 모자라는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장을 세 번 맞고, 그리고는 돌맹이로 얻어맞은 것이 한 번, 또 그밖에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바울 선생은 “좋다” 이겁니다. 내가 늘 즐겨 외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무엇이든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비록 내 목이 잘려 솟구치는 피가 교회의 제단 위에 뿌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나니.” 그런 차원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어쩐가. “좋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좋음이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 선생 식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그런 세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축복이지 땅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인데 오늘은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3x6=18, 3절, 6절, 10절, 8절입니다. 3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6절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10절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8절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네 절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난 그걸 절반 갈라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으로 나누어 오늘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절을 골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義)인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라 하면 하늘이 높아 가을의 특색을 의라고 합니다. 요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것은 자꾸 올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못해요. 칸트는 “사람은 이상하다.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올라가려는 성질은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의 입장에서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고, 그것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순수이성비판』의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요전에 설악산에 갔더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양 쪽에다가 짐을 놔두고는 그냥 올라가요. 대청봉 꼭대기까지 4시간이면 도착하는데 거기 대청 꼭대기에 올라가 앉았다가 양 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2시간 반이면 내려온대요.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하루에도 몇 만 명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올라가고 싶단 말이지요.

사람이 올라가고 싶다는 건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고 나기를 그렇게 타고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영국 사람에게 신문기자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올라가느냐?” “거기 있으니까(존재) 올라가지.” 그렇게 대답했대요. 무엇이 있으면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집에 어린이들은 책상에도 올라가고, 재봉틀에도 올라가고 아무거나 있으면 올라가지, 있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이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 어린이들도 무엇이 있으면 자꾸 올라가고 싶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자꾸 올라가고 싶은 것,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상돈, 그분도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 왔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거기 올라갔다 온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깐 한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자기는 산에 올라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고통이 뒤따른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다. 둘째는 산에 올라가면 고독이 뒤따른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올라가니까 고독이 뒤따르는데 그것도 참 좋은 거다. 셋째는 산에 올라가면 고견(高見)이 뒤따르는데 그것도 참 좋은 거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고통과 고독과 고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고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됐다는 것은 고통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고통이지, 사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태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꾸 올라가는 데는 고생이 뒤따르는데 그 고생을 즐거워 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고통이 싫다고 하면 사람 구실 못하고, 고통이 좋다고 해야 됩니다.

사랑했나 하면 유대 민족을 고생시켰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문화인 소리 못 듣고 야만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데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먹을 것 넉넉하고, 옷 걱정, 떨 걱정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에서 일곱까지도 세지를 못해요. 저 남의 섬에 가서 “너 몇 살인가?” “일곱 살이에요.” “아버지는 몇 살인가?” “아버지도 일곱 살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봐도 일곱 살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팔자 좋은 데서 태어나면 야만인밖에 될 것이 없어요. 인류의 문화라는 것이 주로 살기 어려운 북에서 나오죠. 춥고 견디기 어려운 데서 문화라는 것이 시작 되지, 덥고 살기 좋은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손으로 사랑함이 아니라 발로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로 차버리는 거죠.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 제 새끼를 낳으면 골짜기로 탁 차버려요. 그래서는 데굴데굴 굴러 떨어지는데, 다시 산꼭대기의 부모를 향해서 ‘얏’ 하고 달려오는 놈은 갖다 기르고, 그만 떨어져서 ‘퍽’ 하는 것은 내버려 둔답니다. 사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選民)이라면 탁 차버리겠지요. 데굴데굴 굴러서는 바빌론 골짜기 같은 데로 기어들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탁 차버려서 사해(死海)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해 골짜기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냉큼 돌아서서는 하늘을 향해 ‘앗’ 하고 소리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헬몬 산(3,300m)을 기어 올라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그러합니다. 선은 무엇인가? 선은 올라가는 겁니다. 악은 무엇인가? 악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육체가 자랄 때는 육체가 자라야 하고, 육체가 자라는 것이 끝나면 마음이 자꾸 자라야 하고, 마음 자람이 끝나면 정신이 자꾸 올라가야 하고, 정신 자라는 것이 끝나면 영혼이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자꾸 올라가는 것,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꾸 올라가는 데는 고생이 뒤따르는데 그 고생을 즐거워 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고통이 싫다고 하면 사람 구실 못하고, 고통이 좋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강당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이 많아서 힘들지요? 그런데 좀 있으면 자리를 옮겨서 더 높은 데로 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게 좋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고독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생각을 못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독이다.” 고독은 높은 정신이지요. 인생은 이 높은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절, 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두 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목을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백두산과 같은 그런 산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산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상돈이라는 분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적은 글입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정상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무서운 빙벽과 고요한 빙호와 넘치는 빙하가 8,848m 에베레스트의 모습이다. 옛 사람은 이 산을 설산(雪山)이라 했고, 이 설산은 가끔 위대한 스승에 비유되었다.

위대한 스승에게는 빙벽과 같은 의와 불의를 판가름하는 무서운 정의감이 감돌고 있다. 그리고 얼음같이 차가운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는 고요한 진리감이 깃들었고, 빙하같이 넘치는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자비감이 흘러내려야 한다. 무서운 정의와 고요한 진리와 넘치는 자비가 하나가 될 때 위대한 스승은 이루어진다. 그에게는 무서운 의와 차가운 진리와 뜨거운 사랑이 합쳐져 하나의 스승을 이룩한다.

인생을 초월한 법사와, 중생을 초월한 약사와, 학생을 초월한 교사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다. 실존은 땅의 뜻이라고 한다. 스승은 중생의 열쇠다. 이 열쇠 없이 중생은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 스승이야말로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요, 빛이요, 뜨거움이다.

눈에 덮인 히말라야는 영원히 구름에 덮이고 얼음에 덮여 범인(凡人)의 접근을 불허한다. 다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오대양 육대주에 차고 넘친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것은 넘치는 사랑뿐이다. 사랑의 배후에는 한없이 높은 지혜가 있고, 지혜의 배후에는 한없이 무서운 실재가 있다. 한없이 높은 인격과 한없이 깊은 지혜와 한없이 넓은 사랑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스승의 모습을

아로새긴다.

8,848m의 에베레스트, 네 모습이야말로 위대한 스승,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8,848m의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산이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산도 좋아요. 산이란 올라갈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설악산을 갔었습니다. 학생들과 외설악을 갔기 때문에 대청에는 못 올라가고 울산바위까지만 갔는데 울산바위도 780m라고 합니다.

어느 남자 대학 산악회 학생들이 울산바위를 갔다 온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도 좋으냐고 하니깐 할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이 가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못 가면 그만 둘 테니까 끼워달라고 해서 쫓아갔어요. 울산바위 꼭대기를 1시간 25분 걸려 올라갔는데, 내가 결국은 계속해서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내려올 때도 계속 그 학생들하고 내려와서는 공원 입구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 건느냐고 그래요. 자기들은 있는 힘을 다해 빨리 갔다 오는 건데 그걸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엔진이 좋지만 나는 빈 차다. 학생들은 젊을 때니까 엔진이 좋지요. 그래서 짐은 비록 많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엔진이야 이제 다 고장이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멎으려고 하는데 난 빈 차예요, 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랐나 그러겠지만 말랐다고보다는 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진 짐도 무겁지만 살이 많이 찌도 무거워요. 그래서 살이라는 건 가끔 빼는 것이

좋습니다. 곰들은 겨우내 아무것도 먹지 않아 그동안 살이 쭉 빠져 버리지요.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 풀이 나면 그 풀을 먹고 살이 오르는데 살이 없어졌다가 찌는 것은 금세예요. 그래서 다시 살이 찌면 그건 보통 힘이 있지를 않습니다. 새 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물결처럼 태극기의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들었다가 나가는 이런 운동을 호흡을 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을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돋고, 썩이 슬고, 속이 썩습니다. 그 썩는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병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앓는다는 말 들었어요? 병이 없어요. 병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붙들려 매여 사는 동물에게만 병이 있는 거죠. 그건 자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연에는 병이 없습니다. 왜 병이 없냐 하면 신진대사가 자연적으로 되니까. 그러니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살 많이 찌신 분들은 살을 좀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만 썩 빼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살이 오르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맨 처음에 살을 뺐더니, 그전까지는 이 대강당 계단 올라오는 것도 숨이 차서 못 올라오겠더니 대강당이 뭉니까. 하루에 백운대를 두 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숨이 안 차나 하고, 백운대를 올라갔는데 숨이 안 차요.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숨이 안 차요. 숨이 찬다는 말은 벌써 짐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짐이 무겁지 않게 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가벼운 몸을 기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기체후 일항만강 하옵시며” 그러는데 선생님 가운데는 기체후가 많지 않고, 고체후가 많고, 액체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언제나 가볍게 해서 산만 보면 자꾸 올라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나와 됩니다. 독수리처럼 자꾸

올라가고 싶다는 것, 어린애들은 엔진이 좋아서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나이 많아지면 엔진은 믿을 수가 없고, 내 몸을
빈 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하면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나는 매일 이화대학에 오는데 이화대학에 오는 건지 뒷산에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점심 때만 되면 난 늘 뒷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살이 많이 찘어도 가볍게만 느껴지면 됩니다.

몸이 가볍다는 것, 그걸 다시 정신의 세계에 대입을 해보면 언제나
마음이 가볍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볍다는 말은
경솔하다는 말로도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더 쉽게 말하면 언제나
마음이 맑고, 명랑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비었다는 말을 썼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비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나 말이 통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언제나 밥이 통해야 됩니다. 코로는 언제나 바람이 통해야
되고, 눈으로는 언제나 이치가 통해야 되고, 귀로는 언제나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척 알아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막히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말이 안 통하고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않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살려면, 역시 마음이 비어야
됩니다. 아만(我慢)이 있다든가, 아집이 있다든가, 교만하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서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꼭 막혀지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으려면 자기라는 소아(小我)를 버리고 어떤 의미로는 무아(無我)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든지 언제나 빈 그릇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영웅 흥중에 한가월이라.” 영웅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가한 달이 떠있다. 밤낮 바쁘다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한가롭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성경반 시간에 나는 아무와도 다룰 상대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냥 가터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안 때리면 내가 때리겠다고 달려드니까 “당신은 개가 짖으면 같이 짖겠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속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유가 있는 마음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아침 성경공부 시간에 빠진 적이 없어요. 듣는다는 건 죽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1장에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았다, 그런 것이 없어요. 계속 배우고 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세상에 배우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다보면 그것만은 확실히 알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건강한 정신이 되나,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건강한 정신이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 있게 되고, 인생이 낙관이 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도 배운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배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야 되거든요. 그릇이 비어야 될 답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누가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마음도 가볍게, 비게 해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진짜 빈다고 해서 진공(眞空)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말 비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골라먹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죠.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게, 무슨 말이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말 듣는 연습을 하여야 되겠기에 김동길 선생님과 나와 둘이 말하는데 그중 다만 한 사람의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뚫려야 합니다. 귀가 뚫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뚫려야 합니다. 마음이 뚫리기 위해서는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듣고 생각하고, 내일도 또 듣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 생각을 못합니다. 자꾸 생각하는 동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우주보다 더 커져서 우주도 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런 큰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의 3절은 귀가 뚫린 것이지만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그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뚫리나. 눈이 뚫리는 거죠. 사람은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고, 코가 뚫리고, 이 네 가지가 뚫려야 합니다. 요전에 의를 위해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건 입이 뚫렸다고 봐야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건 코가 뚫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귀가 뚫렸다고 봐야 되겠고, 8절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그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요새 말로 하면 입장(立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의 입장을 가진다. 그리스도란 뭔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의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으면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전체를 생각할 수 있고, 언제나 직관할 수 있고, 언제나 근원적인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차도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으면 편안하지만 도중에 있으면 미끄러집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꼭대기에 올려다 놔야지 중간쯤 하면 10년을 하나, 3년을 하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미끄러지면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런 걸 오

보백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산꼭대기에 올라다 놓으면 그것이 낮은 산이건, 높은 산이건 안정된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눈이 깨끗한 자는 역시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눈이 깨끗해지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눈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요새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을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밑에 계신 것이지,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밑에 있다. 요새 신학으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밑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올려놔 주는 반석이에요. 하나님은 산성(山城)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세계, 그것이 곧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놓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교인이란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했다, 내일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의 입장에 서서 다른 말을 해야지 그 입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입장,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언제나 하나의 입장인데, 그 입장이라는 것만 서면 언제나 교(敎)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교는 언제나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장이 서야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입장에 설 수 없으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되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교이불권(敎而不倦)” 나는 아무리 가르쳐도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학이불염(學而不厭)” 나는 아무리 배워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절은 아무리 배워도 싫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8절은 아무리 가르쳐도 권태를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그건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선생이란 사람은 뭘 봤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이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봤지, 보지 못하고는 말 못합니다. 말이라는 건 따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화꽃을 보면서 국화에 대해 어떻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얼마든지 들어야 되고, 선생은 얼마든지 가르쳐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귀 이 耳 자를 쓰고, 가르치는 것은 입 구 口 자를 쓰는데, 귀 이 번에 입 구, 그것이 잘 돼서 왕이 되면, 그것이 성경의 성 聖 자예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선생입니다.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반 편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되고, 학생으로서 배워야 되고, 언제나 배우고 가르치고가 겹치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산에 올라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서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여야겠기에 오늘은 산이란 말을 해봤습니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외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권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예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